이감국어 모의고사

02

SEASON 2

예비평가 지문분석

[2024학년도 시즌2 제2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4~9] 사회 통합

국제 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와 각국의 세무 정책 효과

＊ 지문 평가

(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나)는 조세 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세무 정책'을 다루는 통합 지문이다. 정보량이 상당하며, 조세 회피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각국의 입장에 따라 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파악해야 하므로 꼼꼼한 독해가 필요하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사회 - 경제학 - 조세 회피, 조세 피난처
조세 회피, 조세 피난처, 이전 가격, 조세 조약

(나) 사회 - 경제학 - 조세 회피
자본 수출국, 명목 세율, 외국 납부 세액 공제율, 자본 수입국

＊ (가) 지문 분석

 # (가)문단1 : 과세의 원칙을 악용한 조세 회피

1) 일반적으로 세금의 부과는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한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이 다른 국가에 설립 등기한 현지 법인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국의 세무 당국은 현지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거나 과세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 '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한 국가의 과세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진다.
⇒ 가령 본사가 위치한 국가를 A국, 해당 기업의 현지 법인이 설립된 국가를 B국이라고 하자. 이 경우 현지 법인을 경영하는 것이 A국의 본사라고 하더라도, A국은 타국에 위치한[→ A국의 거주자가 아닌] B국의 현지 법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2) 최근 이러한 점을 악용한 **조세 회피**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나아가 그러한 조세 회피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 (가)문단2 : 국제 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 방법

1) 관계 회사들 간의 국제 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는 흔히 **조세 피난처**로 불리는 저세율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국외 소득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조세 회피 방법이다. 세금은 '국내 거주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저세율 국가의 거주자인 현지 법인은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저세율 국가의 현지 법인에 소득을 몰아줌으로써 세금이 덜 부과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2) 이때 이전 가격을 이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이전 가격**이란 기업이 특수 관계에 있는 국외 기업과 거래할 때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장 가격에 비해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설정한 거래 가격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저세율 국가의 현지 기업에 각종 소득을 집중시킴으로써 기업 그룹 전체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이전 가격'을 이용한 조세 회피 방법이다. 가령 B국의 현지 법인이 A국의 본사에 '판매하는' 상품의 거래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본사가 해당 제품을 더 비싸게 구매하는 셈이기 때문에 결국 현지 법인으로 소득이 집중된다. B국이 조세 피난처라면 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낮출 수 있다. 또한 B국의 현지 법인이 A국의 본사로부터 '구입하는' 상품의 거래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전 가격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경우 :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관계 회사에 소득이 집중됨
이전 가격이 '과소하게' 설정되는 경우 :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관계 회사에 소득이 집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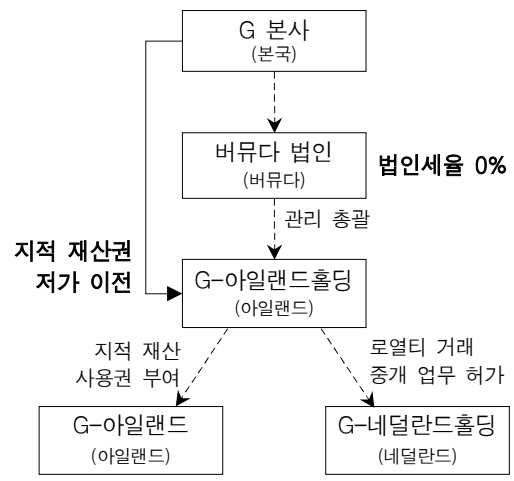
[맥락 짚기] 이전 가격을 이용한 조세 회피 방법은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방법에 수반되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임을 놓치지 말자.

3) 그 밖에 특정 국가 간에 이루어진 **조세 조약**을 남용하는 방법, 즉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3국의 거주자가 원래 누릴 수 없는 조약의 혜택을 취하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 '조세 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 회피 방법이다. 두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 조약을, 두 국가가 아닌 제3국의 거주자가 이용하는 것을 가리켜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 (가)문단3 :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전략 (1)

1)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아일랜드 회사 두 곳과 네덜란드 회사 한 곳을 이용한 조세 회피 방법을 고안했다.
⇒ 조세 회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앞서 설명한 '조세 피난처', '이전 가격', '조세 조약 남용'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국적 기업 G가 법인세율 0 %인 버뮤다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 보자. 이 법인은 다시 아일랜드에 G-아일랜드홀딩을 설립하고, G 본사는 G-아일랜드홀딩에 지식 재산권을 저가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어 G-아일랜드홀딩은 아일랜드에 영업용 자회사인 G-아일랜드를 설립하고, 네덜란드에는 지식 재산권 사용료인 로열티의 거래를 중개하는 형식상의 법인인 페이퍼 컴퍼니 G-네덜란드홀딩을 설립한다.
⇒ 먼저 G는 저세율 국가인 버뮤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 이는 해당 법인을 '조세 피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문단2-1)].
⇒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개의 현지 법인들이 추가로 설립된다. 그중 G-아일랜드홀딩은 시장 가격에 비해 '과소하게' 설정된 가격으로 G 본사로부터 지식 재산권을 이전받는다. 이는 '이전 가격'을 이용해 조세 피난처에 소득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이다[문단2-2)].
[맥락 짚기] 이후 조세 회피 방법 중 나머지 하나인 '조세 조약 남용'에 해당하는 상황이 제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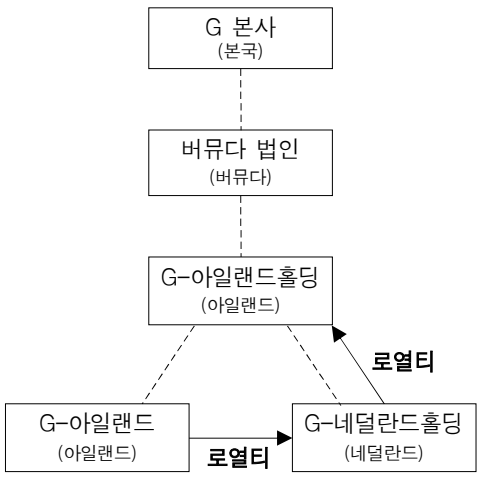


 # (가)문단4 :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전략 (2)

1) 조세 회피는 G-아일랜드가 지식 재산권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로열티 명목으로 G-네덜란드홀딩에 보내고 G-네덜란드홀딩은 이를 다시 G-아일랜드홀딩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G-아일랜드는 '영업용 자회사'로서 G-아일랜드홀딩이 이전받은 지식 재산권을 활용하여 실제로 수익을 낸다. 그렇게 얻은 수익을 곧바로 버뮤다 법인으로 보내지 않고 G-네덜란드홀딩을 거쳐서 G-아일랜드홀딩으로 보내고 있다.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2) G-아일랜드가 버뮤다 법인에 수익을 보내면 아일랜드 세법상 20%의 원천 징수세가 부과되므로,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지급된 로열티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세 조약의 혜택을 취하려고 G-네덜란드홀딩을 거쳐 G-아일랜드홀딩으로 송금한 것이다.

⇒ G-아일랜드가 수익을 곧바로 버뮤다 법인으로 보낸다면, 버뮤다 법인은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 징수세'가 부과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로열티 명목으로 네덜란드의 현지 법인을 거쳐 G-아일랜드홀딩으로 수익을 보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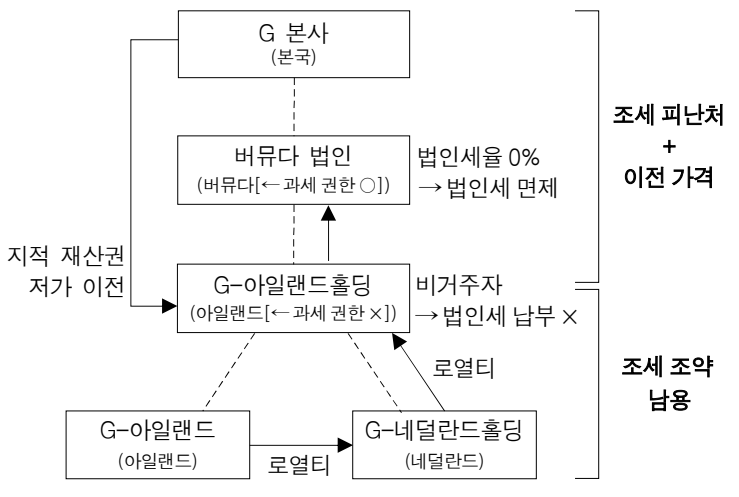
⇒ 그러면 네덜란드 현지 법인과 아일랜드 현지 법인 간의 로열티 거래가 되어서 조세 조약의 혜택을 취할 수 있다. 이는 조세 조약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문단2-3)].

3) 이 같은 방식으로 G의 해외 수익 대부분은 G-아일랜드홀딩에 누적되는데, 아일랜드 세법에 따르면 G-아일랜드홀딩은 모든 업무를 G의 버뮤다 법인이 총괄한다는 이유로 아일랜드의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결국 법인세 과세 관할이 버뮤다로 넘어가면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 이렇듯 이전 가격으로 지식 재산권을 싸게 이전받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조세 조약의 남용을 통해 최대한 세금을 회피하여 G-아일랜드홀딩에 쌓인다.

[주목] 만약 아일랜드가 G-아일랜드홀딩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조세 회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G-아일랜드홀딩 역시 '버뮤다 법인'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일랜드는 G-아일랜드홀딩의 수익[→ G-아일랜드홀딩에 누적된 G의 해외 수익]에 조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문단1-1)].

⇒ 한편, 버뮤다는 법인세율이 0%이다. 따라서 G-아일랜드홀딩에 누적된 수익에는 그 어떤 세금[→ 원천 징수세, 법인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 (나) 지문 분석**

 # (나)문단1 : 조세 회피 억제를 위한 세무 정책

1) 국제 거래를 이용한 조세 회피는 통상 해당 거래의 세후 수익률을 높여 국내 경제 활동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세무 당국은 조세 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세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가)의 내용을 (나)의 독해에 의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가)에서는 '조세 피난처', '이전 가격', '조세 조약 남용'을 이용한 구체적인 조세 회피 사례를 다루었다면, (나)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조세 회피를 위한 각 방법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 회피를 통해 국제 거래의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가)의 사례에서 다국적 기업 G가 G-아일랜드홀딩에 수익을 누적하듯이, 본국의 경제 활동을 현지 법인으로 이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국내 경제 활동을 계속해서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조세 회피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2) 그런데 세무 조사 강화 등의 물리적 방법은 외국 기업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조세 회피가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세무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내 기업의 조세 회피는 줄이면서 외국 기업의 국내 유입은 억제하지 않는 적당한 수준의 정책을 찾는 것이 (나)의 초점이다.

 # (나)문단2 : 조세 회피 방법에 따른 세무 당국 대응

1) 이전 가격을 이용한 조세 회피는 기업의 거주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세무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조세 회피가 나타나더라도 오히려 외국 기업의 국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대응 없이 무시할 수 있다.

⇒ 이전 가격을 이용한 조세 회피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의 사례에서는 G-아일랜드홀딩에 지식 재산권을 저가로 이전한 것에 해당한다[(가)의 문단3-2)].

⇒ 아일랜드 세무 당국의 입장에서 이전 가격을 이용한 조세 회피는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전 가격을 이용한 거래에 의해 외국 기업의 국내 경제 활동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2) 이와 달리 조세 피난처를 통한 조세 회피는 주로 국외 소득에 대한 거주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 당국은 국내 기업의 조세 피난처 활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 반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조세 회피는 세무 당국 입장에서 문제 삼아야 한다. 이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세무 당국의 과세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가)의 사례에서는 G-아일랜드홀딩이 아일랜드의 거주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세 피난처인 버뮤다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세무 당국의 과세를 회피한 것에 해당한다[(가)의 문단4-3)].

3) 그리고 조세 조약의 남용을 통한 조세 회피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세무 당국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 '조세 조약 남용'은 원천 징수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다.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원천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게 되면 세수는 늘어나지만,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 (가)의 사례에서는 G-네덜란드홀딩을 설립하여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간 조세 조약의 혜택을 취한 것에 해당한다[(가)의 문단4-1)].

[맥락 짚기] 지문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세 부담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의식해야 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각 방법에 대한 세무 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이전 가격	조세 피난처	조세 조약 남용
대응 필요 ×	대응 필요 [→ 거주지 과세 회피]	대응 필요 [→ 원천 징수세 회피]

 # (나)문단3 : 자본 수출국 입장에서의 세무 정책 효과

1)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본 유출보다 자본 유출이 많은 **자본 수출국**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세무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목 세율** 인하 정책이다. 이는 국외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어 조세 회피의 동기를 축소하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한 세율도 낮추어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빈번한 '자본 수출국'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자본 수출국이 '명목 세율'을 낮추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외 소득에 어차피 낮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조세 회피의 필요성도 줄어든다.

⇒ 또한 같은 이유로 외국 기업도 해당 국가에 투자할 유인이 생긴다. 가령 (가)의 다국적 기업 G 입장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명목 세율이 0%가 된다면 굳이 버뮤다[→ 조세 피난처]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없어진다.

2) 둘째,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비율인 **외국 납부 세액 공제율**을 인상하여 조세 회피 동기를 축소하는 정책이다.

⇒ 이미 외국에 세금을 납부했을 때 그에 맞춰 국내 세금에서 덜어 주는 비율[→ 외국 납부 세액 공제율]을 높일 수도 있다.

> 명목 세율↓, 외국 납부 세액 공제율↑ ⇨ 조세 회피 동기↓

3) 다만 이 두 정책은 각각 세수 감소를 동반하므로 공공재 공급 규모를 줄여 국민 후생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 그런데 명목 세율은 인하하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율은 인상하면 기업이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국민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 명목 세율↓, 외국 납부 세액 공제율↑ ⇨ 세수↓
> ⇨ 공공재 공급 규모↓ ⇨ 국민 후생↓

4) 그래서 명목 세율을 인하하면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율을 인하하는 것이 최적의 조합으로 간주된다. 전자의 긍정적 효과와 후자의 긍정적 효과가 후자의 부정적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 앞서 설명했듯이 명목 세율을 낮추면 조세 회피의 동기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지만, 국민 후생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도 함께 발생한다.

> 명목 세율↓ ⇗ 조세 회피 동기↓(긍정적) …㉠
> ⇘ 세수↓ ⇨ 공공재 공급 규모↓ ⇨ 국민 후생↓(부정적)

⇒ 이때 외국 납부 세액 공제율을 인하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각각 발생한다.

> 외국 납부 세액 공제율↓ ⇗ 조세 회피 동기↑(부정적) …㉢
> ⇘ 세수↑ ⇨ 공공재 공급 규모↑ ⇨ 국민 후생↑(긍정적)…㉡

⇒ 명목 세율 인하의 부정적 효과는 ㉡에 의해 상쇄된다. 또한 ㉠과 ㉡이 ㉢보다 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두 세무 정책을 같이 시행하면 조세 회피의 동기도 충분히 낮추면서 국민 후생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명목 세율과 외국 납부 세액 공제율 모두 낮추는 방법을 최적의 정책으로 본다.

 # (나)문단4 : 자본 수입국 입장에서의 세무 정책 효과

1) 자본 유출보다 자본 유입이 많은 **자본 수입국**의 입장에서 조세 조약의 남용을 통한 조세 회피는 외국 기업의 국내 세후 수익률을 제고시켜 국내 투자를 늘리지만 원천지 과세가 회피되므로 국내 세수를 감소시킨다.

⇒ 이번에는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빈번한 '자본 수입국'의 입장이다. 자본 수출국의 입장과 구분하여 이해하자.

⇒ 자본 수입국 입장에서 조세 조약의 남용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는다. '국내 투자'를 늘리지만[→ 조세 조약을 남용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세수'를 줄이기 때문이다[→ 조세 조약을 남용함으로써 원천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2) 그래서 명목 세율을 낮추는 정책으로 대응하면 조세 조약 남용의 동기를 약화하면서 국내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 수입국의 세무 당국은 '명목 세율 인하'를 택한다. 원천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춘다면 굳이 조세 조약을 남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가)에서 G-아일랜드는 아일랜드의 원천 징수 세율이 0%였다면 굳이 G-네덜란드홀딩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G-아일랜드홀딩[→ 결과적으로 버뮤다 법인]으로 수익을 보냈을 것이다[(가)의 문단4-2)].

⇒ 이는 조세 조약을 남용할 동기를 억제할 뿐이지, G로 하여금 아일랜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동기까지 억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원천지 과세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아일랜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것이다[→ 국내 투자 증가].

3) 그러나 명목 세율 인하 정책은 자본 수출국에서와 같이 전반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로 인한 공공재 공급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 다만 명목 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수출국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민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다.

> 명목 세율↓ ⇗ 조세 조약 남용↓, 국내 투자↑
> ⇘ 세수↓ ⇨ 공공재 공급 규모↓ ⇨ 국민 후생↓

[주목] 자본 수출국의 세무 당국은 주로 거주지 과세의 회피에 대응할 것이고, 자본 수입국의 세무 당국은 주로 원천지 과세의 회피에 대응할 것이다. 이전 가격을 활용한 조세 회피 방법에는 자본 수출국이든 자본 수입국이든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전 가격	조세 피난처	조세 조약 남용
대응 필요 ×	자본 수출국의 대응 필요 [→ 거주지 과세 회피]	자본 수입국의 대응 필요 [→ 원천지 과세 회피]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보기> 분석

<보기>문단

1) A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커피 회사 갑은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B국에 자회사 을을 설립했다. 갑이 전 세계에서 원두를 매입하여 을에 공급하면, 을은 가격을 대폭 높여 갑이 C국에 설립한 판매 총괄 회사 병에 공급한다. 병은 이 원두를 가공하고 포장하여 전 세계에 판매한다.

[맥락 짚기] (가)에 제시된 G의 예시를 참고하여 <보기>의 예시에서 '갑'이 '조세 피난처', '이전 가격', '조세 조약 남용'을 어떻게 이용하여 세금 회피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 B국은 저세율 국가에 해당하므로, B국에 설립된 현지 법인 '을'은 조세 피난처로 사용될 것이다[(가)의 문단2-1)]. 이는 거주지 과세 회피에 해당한다.

⇒ 을은 '과도하게' 설정된 가격으로 C국의 현지 법인 '병'에 원두를 판매한다[(가)의 문단2-2)]. 이렇게 되면 B국의 을에 수익이 누적될 것이다. 이전 가격을 활용한 거래는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조세 회피를 극대화하는 데 활용됨을 상기하자.

> 이전 가격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경우
> :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관계 회사[→ B국의 을]에 소득이 집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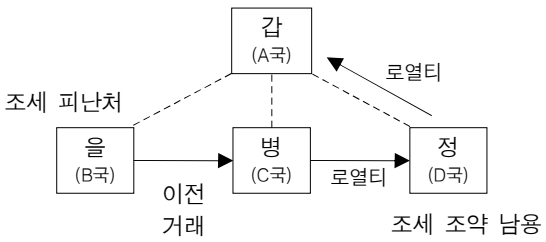
2) 한편 갑은 D국에 커피 제조에 관한 무형 자산[→ 지식 재산권]을 소유한 자회사 정을 설립하고, 병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로열티 명목으로 정에 송금한다. C국과 D국 간에는 로열티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

⇒ 한편 병은 대부분의 수익을 로열티 명목으로 D국의 현지 법인 '정'에 보낸다. C국과 D국 간의 조세 조약을 남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D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것이다[(가)의 문단4-2)]. 이는 원천지 과세 회피에 해당한다.

3) …… D국에서는 이 로열티가 A국으로 유입된다고 보아 정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다.

⇒ D국의 세무 당국은 정작 '정'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로열티가 다시 A국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 병에서 갑으로 곧바로 로열티를 보낸다면 원천지 과세를 피할 수 없어서, 병에서 정을 거쳐 갑으로 로열티를 보내는 방법으로 조세 조약의 혜택을 취한다.



4) 이 상황에서 B국과 C국의 세무 당국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 B국의 세무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전 가격을 이용한 조세 회피는 애초에 세무 당국이 문제 삼는 바가 아니며[(나)의 문단2-1)], B국에 갑의 수익이 집중되는 상황은 B국 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C국의 세무 당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조세 조약의 남용이 문제 되며, 세무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한 원천지 과세 회피를 문제 삼아야 한다[(나)의 문단2-3)]. 로열티가 누적되는 곳은 D국의 '정'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곳은 '갑'인데, 취지대로라면 갑은 조세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A국의 거주자이기 때문이다.

∴ 을은 가격을 대폭 높여[→ 과도하게 설정된 가격] 병에 원두를 공급하는데, 이는 이전 가격을 이용하여 조세 피난처인 을에 수익이 누적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②번 선지는 적절하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0~13] 과학

앨러스테릭 효소의 활성 통제 원리

*** 지문 평가**

이 지문은 '앨러스테릭 효소'를 바탕으로 인체 내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의, 보통의 촉매와 구분되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보의 밀도가 상당히 높지만, 지문의 초점을 끝까지 의식하면 어떤 정보를 챙겨야 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리학 - 앨러스테릭 효소
화학 반응, 효소, 활성화 에너지, 촉매, 기질 특이성, 활성 부위,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앨러스테릭 효소, 활성 상태, 비활성 상태, 조절 부위, 활성자, 억제자, 인산 과당 인산화 효소(PFK), ATP, ADP, AMP, 인산화 반응

*** 지문 분석**

 # 문단1 : 효소의 촉매 역할

1) 인체에서 생명 유지를 위해 일어나는 수많은 **화학 반응**에는 다양한 **효소**들이 관여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 물질이 해당 반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 생존을 위해서는 인체에 각종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 흡수 ⇨ 화학 반응 ⇨ 인체의 생명 유지

[맥락 짚기] 이후 반응 물질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에 있어서 '효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될 것이다. 지문의 첫 문단을 읽을 때에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식해야 한다.

2)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화학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거나, 긴 시간이 소요된다.

⇒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화학 반응은 반응 물질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비교적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반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화학 반응은 그렇지 않다.

3) 화학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주위 온도를 높여 반응 물질이 쉽게 열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

⇒ 온도와 화학 반응 간의 관계가 주어졌다.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물질은 쉽게 열에너지를 흡수해 활성화 에너지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

온도↑ ⇨ 화학 반응↑

4) …… **촉매**를 통해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출 수도 있다. 효소는 인체 내의 화학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한다.

⇒ 온도에 대한 설명과 구분하여 촉매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온도는 반응 물질이 활성화 에너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할 뿐,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추지는 않는다.

온도 상승	촉매
화학 반응 촉진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함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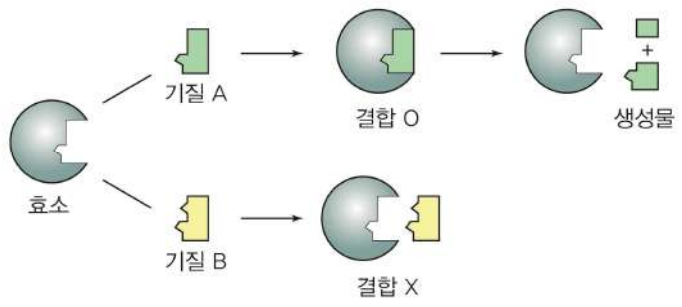
⇒ 즉 인체 내의 화학 반응들이 촉진될 수 있는 것은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가 각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이다.

[참고] 인체의 화학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온도를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온도 상승은 모든 화학 반응을 촉진하므로 인체에 필요한 특정 화학 반응만을 촉진하는 등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 문단2 : 보통의 촉매와 구분되는 효소만의 특징

1) 효소의 촉매 역할은 보통의 촉매와는 다른, **기질 특이성**에 의존한다. 이는 반응 물질인 기질과 결합할 수 있는 **활성 부위**가 효소마다 고유한 형태를 가져서 특정 기질과만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 '기질 특이성'은 효소만이 갖는 특징으로, 효소의 물리적 구조에 기인한다. 효소의 활성 부위는 특정 구조의 기질[→ 반응 물질]과만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효소는 보통의 촉매와 달리 해당 기질의 화학 반응만을 촉진한다. 가령 다음의 효소는 기질 A의 화학 반응만을 촉진할 뿐, 기질 B의 화학 반응은 촉진할 수 없다.



⇒ 하나의 효소가 하나의 반응 물질과 결합하여 화학 반응을 촉진하므로, 수많은 화학 반응에 다양한 효소들이 필요한 것이다[문단1-1)].

[참고] '반응 물질인 기질'과 같이 'Y인 X'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개념 정의는 'X는 Y이다.' 형식의 개념 정의에 비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그런데 인체에서는 화학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효소는 보통의 촉매와 달리 활성이 엄격히 통제된다. 이와 관련한 여러 통제 방식이 있는데,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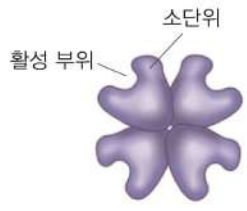
⇒ 효소의 두 번째 특징은 '활성의 통제'다.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수준으로만 촉진되어야 한다.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이후 효소의 활성 통제 방식 중에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 문단3 : 앨러스테릭 효소와 그 활성 통제 방식

1)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에 의해 활성이 통제되는 효소를 **앨러스테릭 효소**라 한다. 앨러스테릭 효소는 동일한 입체 구조를 가지는 네 개의 소단위가 결합한 구조를 띠며, 소단위마다 활성 부위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효소 하나에 기질 분자 네 개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 '앨러스테릭 효소'의 구조가 설명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형상을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앨러스테릭 효소는 네 개의 소단위로 이루어졌으므로 활성 부위 역시 네 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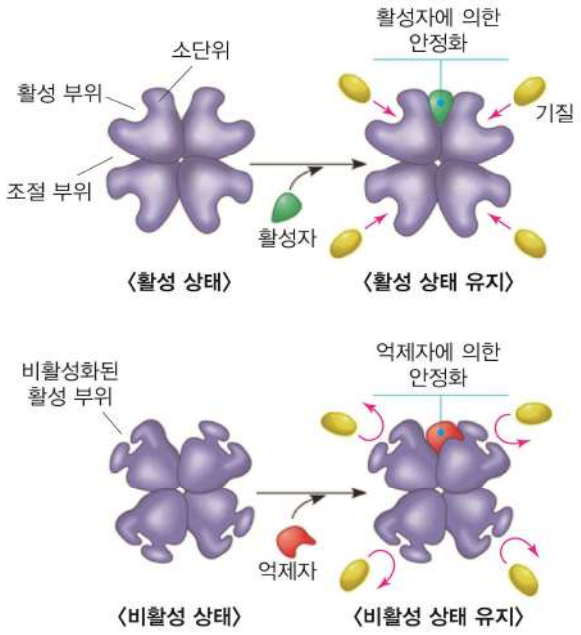


2) 그런데 이 효소는 불안정하여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 사이를 주기적으로 오간다. 이에 따라 소단위 사이의 틈인 **조절 부위**의 형태도 변해서 각각의 상태에서 조절 부위와 결합할 수 있는 물질도 달라진다. 앨러스테릭 효소가 활성 상태 혹은 비활성 상태일 때 조절 부위와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조절 부위 중 하나와 결합하면, 효소는 안정화되면서 활성 상태나 비활성 상태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게 된다.

⇒ '활성 부위'가 특정 구조를 갖는 기질과만 결합할 수 있듯이[문단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1)], '조절 부위' 역시 특정 구조를 갖는 물질과만 결합할 수 있다. 즉 활성 상태인지 비활성 상태인지에 따라 조절 부위와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서로 다르다.



⇒ 앨러스테릭 효소의 소단위가 네 개이므로 소단위 사이의 틈인 조절 부위도 네 개인데, 조절 부위 중 하나라도 특정 물질과 결합하면 앨러스테릭 효소는 안정화되어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활성 상태에서 조절 부위가 특정 물질과 결합하면 그 상태로 안정화되어 활성 상태가 유지되고, 비활성 상태에서 조절 부위가 특정 물질과 결합하면 그 상태로 안정화되어 비활성 상태가 유지된다.

3) 이때 이 효소를 활성 상태로 안정화하는 물질을 **활성자**, 비활성 상태로 안정화하는 물질을 **억제자**라고 한다.

⇒ 그렇다면 '억제자'가 많아서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효소들이 많아질수록 화학 반응이 덜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효소의 활성이 통제되는 것이다.

> 억제자↑ ⇨ 비활성 상태의 효소↑ ⇨ 화학 반응↓
> 활성자↑ ⇨ 활성 상태의 효소↑ ⇨ 화학 반응↑

 # 문단4 : PFK의 구조와 촉매 역할

1) 앨러스테릭 효소의 하나인 **인산 과당 인산화 효소(PFK)**는 세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을 피루브산으로 분해하면서 ATP를 생성하는 당 분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 중 하나이다.

[맥락 짚기] 지문의 초점이 앨러스테릭 효소에 해당하는 'PFK'에 대한 설명으로 좁혀지고 있다. PFK가 촉진하는 인체 내의 화학 반응이 무엇인지, PFK의 활성자와 억제자가 각각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2)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인 **ATP**에 결합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인산기가 하나씩 분리될 때마다 방출되어 세포의 생명 활동을 위해 소모된다. 그렇게 인산기가 하나씩 분리됨에 따라 ATP는 **ADP**, **AMP**로 순차적으로 변한다.

⇒ ATP에서 인산기가 분리될 때마다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세포가 사용한다. 즉 'ATP'는 가득 충전된 배터리로, 'ADP'와 'AMP'는 소진된 배터리로 생각할 수 있다.

> ATP ⇨ ADP ⇨ AMP

3) 세포 내부에서의 당 분해 과정은 순차적인 여러 화학 반응들로 이루어지며, PFK는 당 분해 과정의 중간 산물인 과당 6-인산이 인산기와 결합하는 **인산화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당 분해 과정은 하나의 화학 반응이 아니라 여러 화학 반응들로 구성된 일련의 과정이다. PFK는 '기질 특이성'에 의해[문단2-1)] 그 중 하나의 화학 반응만을 촉진한다.

⇒ PFK에 의해 촉진되는 화학 반응은 '인산화 반응'으로, 이는 과당 6-인산[→ 기질]에 인산기가 결합하는 반응이다.

4) 과당 6-인산에 결합되는 인산기는 ATP에서 공급된 것으로, 당 분해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PFK가 작동하기 이전과 PFK가 작동할 때 ATP가 각각 하나씩 소비되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ATP 네 개가 새롭게 생성된다. 당 분해 과정을 거쳐 포도당 분자 하나가 분해되면서 ATP 두 개가 증가하는 셈이다.

⇒ 인산화 반응에 필요한 인산기는 ATP에서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ATP에서 인산기를 분리하여 ADP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세포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당 분해 과정은 세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함인데, 정작 에너지를 소모하는 화학 반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여러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진 당 분해 과정에서 PFK에 의한 화학 반응까지는 총 두 개의 ATP가 소모된다. 다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에서 네 개의 ATP가 만들어지므로,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ATP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당 분해 과정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 문단5 : PFK에 의한 당 분해 과정 조절

1) ATP는 비활성 상태인 PFK의 조절 부위와 결합하여 PFK를 안정화하는 억제자이며, ADP나 AMP는 활성 상태인 PFK의 조절 부위와 결합하여 PFK를 안정화하는 활성자이다.

⇒ 사실상 지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문단3-3)].

> • ATP↑ ⇨ 비활성 상태의 PFK↑ ⇨ 인산화 반응↓
> • ATP↓[→ ADP, AMP↑] ⇨ 활성 상태의 PFK↑ ⇨ 인산화 반응↑

2) 당 분해 과정에 의해 ATP가 많이 생성되면 그중의 일부가 PFK를 안정화하여 당 분해 과정을 억제하고, 반대로 세포 내부에 ADP나 AMP가 많이 늘어나면 그 일부가 PFK를 안정화하여 당 분해 과정을 촉진한다.

⇒ 당 분해 과정에 의해 ATP가 많이 생성되면 인산화 반응이 억제되므로 당 분해 과정이 억제된다. 따라서 ATP가 덜 만들어진다.

⇒ 반면 ATP가 모자라면[→ 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여 ADP, AMP의 수가 늘어나면] 인산화 반응이 촉진되어 당 분해 과정이 촉진된다. 따라서 ATP가 많이 만들어진다.

> • ATP↑ ⇨ 비활성 상태의 PFK↑ ⇨ 인산화 반응↓ ⇨ ATP↓
> • ADP, AMP↑ ⇨ 활성 상태의 PFK↑ ⇨ 인산화 반응↑ ⇨ ATP↑

3) 이러한 조절 과정으로 인해 세포 내부에서 ATP의 양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

⇒ 이렇게 ATP가 충분하면 ATP를 덜 생성하고, ATP가 부족하면 ATP를 더 생성하므로, ATP의 양은 비교적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즉 PFK에 의해 당 분해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되는 것이다[문단2-2)].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보기> 분석

<보기>문단

1) 6탄당 인산화 효소(HK)는 당 분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로,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유입되기 전에는 비활성 상태로 있다가 포도당이 유입되면 활성화된다.

[맥락 짚기] PFK와 마찬가지로 당 분해 과정에 참여하는 HK에 대한 설명이다. 이 둘의 역할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 PFK는 불안정하여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를 주기적으로 오가지만[문단3-2)], HK는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다가 포도당이 유입되어야만 '활성화'되므로 그 상태가 주기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PFK	HK
주기적으로 활성-비활성 상태 변화	포도당 유입에 의해 활성화

2) 활성화된 HK는 포도당이 인산기와 결합하여 포도당 6-인산이 되는 반응을 촉진한다.

⇒ PFK와 마찬가지로 HK도 인산화 반응을 촉진하는데[문단4-3)], PFK는 과당 6-인산을 기질로 삼는 데 비해, HK는 포도당을 기질로 삼는다. 즉 HK는 당 분해 과정에서 첫 번째 반응을 촉진한다.

HK가 촉진하는 반응 ⇨ …… ⇨ PFK가 촉진하는 반응 ⇨ ……

3) HK는 N-말단과 C-말단을 가지는 소단위 두 개가 결합된 구조이다. N-말단에는 포도당 6-인산과 결합할 수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조절 부위가, C-말단에는 포도당과 결합할 수 있는 활성 부위가 있다.

⇒ HK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네 개의 소단위로 구성된 앨러스테릭 효소인 PFK와 달리[문단3-1)], HK는 두 개의 소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 HK의 조절 부위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PFK는 활성 상태, 비활성 상태를 오감에 따라 조절 부위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과 대조적이다[문단3-2)].

[주목] 즉 PFK는 그 상태에 따라 조절 부위에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활성자와 억제자를 모두 갖는다면, HK는 포도당 6-인산만이 조절 부위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자와 억제자 중 하나만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포도당 6-인산'이 HK의 활성자인지, 억제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포도당 6-인산은 HK가 촉진하는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것이 다시 HK의 조절 부위에 결합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4) N-말단[→ 조절 부위]에 포도당 6-인산이 결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도당이 유입되면 HK가 활성화되면서 C-말단의 활성 부위에 포도당이 결합할 수 있지만, 포도당 6-인산이 많이 생성되어 N-말단에 포도당 6-인산이 결합하면 C-말단의 구조가 변형되면서 포도당이 활성 부위에 결합하지 못하게 된다.

⇒ 활성화된 HK는, '활성 부위'에 포도당이 결합하면 포도당에 인산기가 결합된 물질인 포도당 6-인산을 생성하는 반응을 촉진한다.

⇒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 6-인산은 '조절 부위'에 결합할 수 있으며, HK를 비활성화한다[→ 화학 반응을 촉진할 수 없게 만든다]. 즉 포도당 6-인산은 HK의 '억제자'에 해당한다.

	PFK	HK
활성자	ADP, AMP	×
억제자	ATP	포도당 6-인산

⇒ PFK와 마찬가지로 HK 역시 당 분해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HK는 활성 상태일 때 조절 부위에 포도당 6-인산이 결합하면 비활성 상태로 변한다. 그런데 기질[→ 반응 물질]은 포도당 6-인산이 아닌 포도당이다. 따라서 ④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⑤번 선지와 관련하여 포도당을 HK의 활성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활성자나 억제자는 '조절 부위와 결합'할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문단3-3)]. 그런데 포도당은 기질로서 '활성 부위와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지 조절 부위와는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HK를 활성화할 수 있어도 활성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4~17] 예술

플럭서스와 니체의 예술 철학

*** 지문 평가**

니체의 후기 예술 철학에 영향을 받은 현대 예술 운동인 '플럭서스'에 대해 설명한 지문이다. 니체의 전후기 예술 철학을 비롯하여 제시된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가 다소 까다로운 수준이다. 니체의 후기 예술 철학이 전기 예술 철학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플럭서스는 니체의 후기 사상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며 읽어 나가야 한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미학 – 플럭서스

플럭서스, 니체, 예술가 형이상학, 이성 중심주의, 예술 생리학, 도취, 보이스, 확장된 예술 개념

*** 지문 분석**

 # 문단1 : 니체의 후기 예술 철학에 기반한 플럭서스

1960년대 초반 유럽에서 시작된 급진적 예술 운동인 **플럭서스**는, 예술가와 감상자를 구분하고 예술과 삶을 구분하는 전통적 예술관을 거부하고, 이들 사이의 소통과 융합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예술적 실험들을 감행했다. 이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은 **니체**의 후기 예술 철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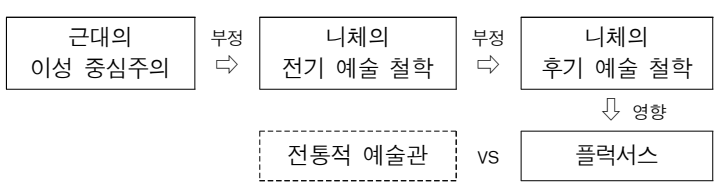
[맥락 짚기] '전통적 예술관'과, '니체의 후기 예술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플럭서스'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플럭서스와 니체의 후기 예술 철학이 왜 그러한 주장을 펼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지문의 초점이다.

	전통적 예술관	플럭서스 [← 니체의 후기 예술 철학]
예술가와 감상자, 예술과 삶	구분	소통, 융합

 # 문단2 : 니체의 전기 예술 철학 – 예술가 형이상학

1) 니체의 후기 예술 철학은 그의 전기 예술 철학인 '예술가 형이상학'을 철저하게 극복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제시된 것이다. **'예술가 형이상학'**은 본래 이성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근대의 **이성 중심주의**가 결과적으로 인간을 수단화하고 형이상학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자각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형이상학으로서의 역할이란 존재의 근원을 규명하여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니체의 '후기 예술 철학'은 그가 앞서 제시한 '전기 예술 철학'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전기 예술 철학은 근대의 '이성 중심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 이성 중심주의는 이성이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형이상학으로서의 역할], 니체는 이성은 실제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2) 니체는 예술가에 의해 창조된 예술이야말로 형이상학을 대체하여, 이성 중심주의가 삶에 대해 답하지 못함에 따라 야기된 허무주의를 극복하게 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니체는 '이성'이 아닌 '예술'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그의 전기 예술 철학인 '예술가 형이상학'적 관점이다. 니체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성 중심주의	예술가 형이상학
형이상학적 역할의 주체	이성	예술
형이상학으로서의 역할 가능 여부	불가능 ⇨ 허무주의 야기	가능 ⇨ 허무주의 극복 ○

3) 그런데 오래지 않아 니체는 형이상학을 대신한 예술이 실제의 삶을 온전히 보여 주지 못하고 단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낼 뿐이어서 허무주의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진정한 예술이라면 삶에 대한 형이상학적 위안물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을 긍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예술 생리학'**을 후기 예술 철학으로 제시했다.

⇒ 그런데 이후 니체는 예술도 형이상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예술이 보여 주는 세계는 실제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 불과하므로, 실제의 삶에 의미나 목적을 부여하지 못하고 '형이상학적 위안물'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성 중심주의	예술가 형이상학
형이상학적 역할의 주체	이성	예술
형이상학으로서의 역할 가능 여부	불가능 ⇨ 허무주의 야기	불가능 ⇨ 허무주의 극복 × [→ 형이상학적 위안물]

⇒ 그래서 니체는 예술의 역할을 '지금 여기의 삶'을 긍정하는 것으로 새로이 정의했는데, 이것이 니체의 후기 예술 철학인 '예술 생리학'적 관점이다.

[맥락 짚기] 이때 '지금 여기의 삶'을 긍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예술과 감상자, 예술과 삶의 구분을 거부하는 것과 어떤 맥락에서 닿아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문단1].

 # 문단3 : 니체의 후기 예술 철학 – 예술 생리학

1) 니체는 '예술 생리학'을 통해 이성보다 몸을 더 중시했는데, 이는 몸과 예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 현상의 하나인 '도취'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도취**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난, 상승하는 느낌이나 충만의 느낌에 가까운 것으로, 몸에서는 삶의 활력이나 생명감으로 나타나고 예술적 체험에서는 창작 행위를 촉발한다.

⇒ 니체는 예술이 형이상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형이상학적 역할의 주체로 보지는 않았다. 즉 여전히 이성 중심주의에는 부정적이었다[문단2-1)].

⇒ 니체는 그 대신에 '몸'에 주목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도취'에 주목했다. 도취를 설명하는 표현인 '상승하는 느낌', '충만의 느낌', '삶의 활력', '생명감'과, 도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수동적인 태도'를 챙겨두자. 이러한 표현들이 선지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삶과 예술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취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통일체인 것이다. 이렇게 삶과 분리되지 않는 예술은 형이상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몸의 생리적 도취의 느낌과 연관된 생명의 체험 그 자체가 예술이기 때문이다.

⇒ 니체가 '도취'에 주목한 이유는 몸과 예술에서 공통적으로 도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도취를 중심으로 '예술과 삶의 구분을 거부'한 것이다[→ 예술과 삶을 소통과 융합의 대상으로 인식].

3) '예술 생리학'에 따르면 예술은 더 이상 연주회나 전시회에 갇혀 있는 예술 작품과 그것을 생산하는 예술가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술의 본질은 예술가와 작품이 아니라 예술적 활동 그 자체에 있으며, 삶을 조형하려는 일체의 실존적 활동이나 행위는 모두 예술 행위인 것이다.

⇒ 니체의 후기 예술 철학에 따르면 '삶 = 예술'이 성립하므로, 결국에는 삶의 모든 활동은 예술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모든 사람이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예술과 삶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예술가와 감상자도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문단1].

[주목] 다만 '모든 행위'가 예술 행위가 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실존적 행위'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이는 곧 예술과 삶을 한데 묶어 주는 키워드가 '도취'인 것과 관련이 있다. 가령 수동적인 행위는 도취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 행위가 될 수 없다.

 # 문단4 : 확장된 예술 개념

1) 플럭서스는 니체의 '예술 생리학'의 정신을 수용하고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플럭서스 운동가인 **'보이스'**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라는 니체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확장된 예술 개념'**을 제시했다. 인간은 본래 창조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창조 행위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하는 행위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 플럭서스는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으로 '확장된 예술 개념'을 제시했다. 모든 사람은 애초에 '창조하는 힘'을 갖고 있으므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1972년에 열린 미술 행사인 카셀 도쿠멘타에서 보이스가 선보인 행위는 그의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 준다. 그는 자신에게 할당된 전시 공간에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사무실'을 열고 그곳에 앉아 방문객들과 토론했다. 이는 정치 행위 또는 사회적 행위를 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예술과 삶을 하나로 보는 니체의 '예술 생리학'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니체의 후기 예술 철학과 플럭서스의 지향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8~21] 고전소설

조성기, 「창선감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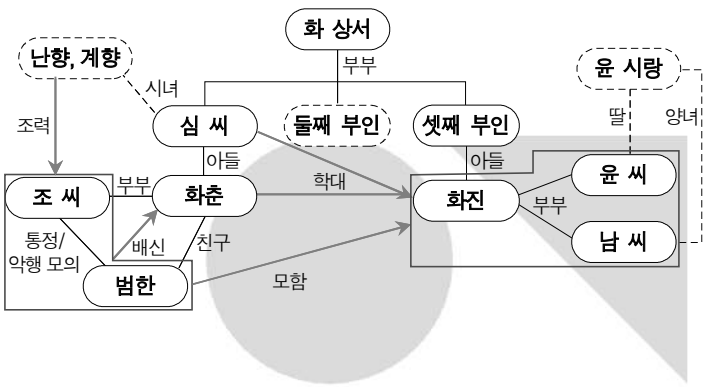
*** 수록 지문 평가**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가정 소설로, '선(善)을 드러내고 의로움에 감동하도록 하기 위한 기록'이라는 의미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가정 내 갈등과 화해를 통해 충효와 형제간 우애 등의 유교적 이념을 형상화하고 있다. 서사가 방대하며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장편 소설로, 지문에서는 가문 내 인물인 조 씨가 외부 인물인 범한과 결탁하여 음모를 꾸미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인물의 이름이나 관직을 정리하면서 사건 전개를 바탕으로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 양상을 파악하며 읽도록 한다.

*** 수록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화 상서의 첫째 부인 심 씨, 심 씨 소생 장남 화춘, 화춘의 새 아내 조 씨는 화 상서가 죽은 뒤 셋째 부인 소생 차남 화진과 화진의 두 아내 남 씨와 윤 씨를 미워하여 학대한다. 한편 몰래 연인 관계를 맺은 조 씨와 화춘의 친구 범한은, 화진 부부를 가문에서 추방하고 화춘까지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 양상을 파악해 두자.



 # 토막1 : 윤 씨와 남 씨의 친필을 찾으려 하는 범한과 조 씨

조 씨[→ 화춘의 부인]가 열쇠를 들고 나가더니 한참 뒤에 돌아왔다.

"윤 씨와 남 씨[→ 화진의 두 부인]의 처소에 들어가 죄다 뒤져 봤지만 편지 쪼가리도 하나 없었소. 다만 남 씨 방에서 이 책 한 권을 찾았는데, 이게 남 씨의 친필인지는 잘 모르겠소."

범한[→ 화춘의 친구]이 보니 『효경』을 정갈하게 옮겨 쓴 것으로, 표지 아래에 '열 살 때 쓰다'라고 적혀 있고, 첫 장에는 '농취정(籠翠亭)'이라 새긴 인장(= 도장)이 찍혀 있었다. 범한이 기뻐하며 말했다.

"농취정은 필시 남 씨가 어릴 적 윤 시랑의 집에 의탁했을 때 머물던 곳 이름일 텐데, 들어 본 적 없소?"

"남 씨는 성격이 도도해서 다른 사람과 사사로운 얘기를 나누는 법이 없고, 그 몸종들도 산동[→ 윤 시랑의 집이 있는 곳]에서의 일은 일절 말하지 않소. 그러니 윤 시랑 집의 정자 이름을 어찌 알겠소?"

⇒ 조 씨가, 윤 씨와 남 씨의 '친필'이 필요해 편지를 찾으러 그녀들의 처소를 뒤졌으며, '앞부분의 줄거리'를 참고할 때 그 친필 편지는 악인인 범한과 조 씨가 화진 부부를 집안에서 쫓아내기 위한 음모에 활용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조 씨는 남 씨의 처소에서 남 씨가 옮겨 쓴 것으로 추측되는 책 한 권을 발견하지만, 그것이 남 씨의 친필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 남 씨가 어릴 시절 몸을 의탁했던 윤 시랑은 화진의 부인 중 한 명인 윤 씨의 부친이다. 남 씨는 간신의 모함으로 귀양길에 오른 부친을 따라가다 간신이 보낸 자객들의 습격을 받아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남 씨는 부친의 친구 윤 시랑의 집에 의탁하여 지내다 그의 양녀가 되고, 윤 시랑은 친딸인 윤 씨와 양녀인 남 씨를 모두 화진과 혼인시킨다.

 # 토막2 : 남 씨의 친필 여부를 확인하고자 화춘과 대화하는 범한

범한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더니 일어나 백화헌[→ 화춘의 처소]으로 가서 화춘에게 물었다.

"자네, 산동 윤 시랑 집에 있는 농취정에 대해 아는가?"

"알지. 무엇 때문에 묻나?"

"듣자니 윤 시랑이 농취정을 호화롭게 지어 명주 비단과 취우[→ 물총새] 깃털로 꾸미고 미인 첩을 얻어 그 속에 두었다더군. 늙은 관리의 풍류가 범상치 않은 것 같네."

화춘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형이 잘못 들었군. 윤 시랑은 청빈한 어른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나?"

범한이 냉소하며 말했다.

"자네는 아는 것이 없군. 윤 시랑의 애첩 이름이 '취교'라서 정자 이름을 '농취'라고 했다던데."

화춘이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그건 더 허무맹랑한 소리군. 일전에 사촌 성 형[→ 화춘과 화진의 고모인 성 부인의 아들]이 화진을 놀리려고 시를 짓기를, '농취정에서는 봉황과 날개를 맞대고, 응향각에서는 화심(花心)을 접하네.'라고 했지. 남 씨 이름에 '봉황 봉' 자가 있고[→ 채봉(彩鳳)] 윤 씨 이름에 '꽃 화' 자가 있어서[→ 판본에 따라 옥화(玉花) 또는 화옥(花玉)] 그렇게 지은 걸세. 내가 듣기로 농취정은 윤 시랑 집에서 화진이 혼례를 올릴 때 남 씨가 머물던 처소 이름이네. '취우'니 '취교'니 하는 말은 금시초문일세."

범한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잘못 들은 것 같군."

⇒ 범한은 남 씨가 윤 시랑의 집에 있었을 때 머물던 곳이 농취정인지 확인하려는 의중을 숨긴 채, 화춘에게 농취정에 대한 거짓 소문을 꾸며 내어 말한다. 범한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화춘은 농취정이 남 씨의 거처였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를 통해 범한은 조 씨가 가져온 책의 필적이 남 씨의 친필임을 확신하게 된다.

(중략)

 # 토막3 : 범한의 음모를 알지 못한 채 화진에게 분노하는 심 씨와 화춘

날이 밝자 집안이 온통 떠들썩했다.

"어젯밤 내당(= 안주인이 거처하는 방)에 자객이 들었다!"

화춘이 허둥지둥 들어가 보니, 심 씨는 넋이 나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고, 심 씨의 침상 앞에는 난향[→ 심 씨의 시녀]이 비수에 맞아 참혹한 모습으로 거꾸러져 있었다. 화춘이 그 광경에 경악하고 있을 때, 계향[→ 심 씨의 시녀]이 대문에서 비단 주머니를 하나 주워 왔다. 화춘이 받아서 살펴보니 쪽지가 들어 있었다. 남 씨와 화진이 심 씨를 살해하려고 모의하는 말이 담긴 편지[→ 범한이 남 씨의 필적을 흉내 내어 위조한 편지]였는데, 내용이 교묘하고도 참혹했다. 화춘이 땅을 치며 말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화진에 대한 적개심]

심 씨가 쪽지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건 남 씨의 필적이야! 불효자 놈[→ 화진에 대한 적개심]이 제 손으로 적모(嫡母, 본부인 소생이 아닌 자식이 아버지의 본부인을 이르는 말)를 죽이려 했으니, 어찌 발각되지 않을 리 있겠느냐!"

마침내 심 씨가 손수 소장의 초안을 썼다. 이때 범한은 조 씨와 함께 있었는데, 계향이 들어와 내당에서 벌어진 일을 알렸다. 범한이 탄식하며 일어났다.

"내 목표는 늙은것[→ 심 씨]에 있었거늘, 자객이 실수로 난향이를 찔렀구나. 애석한지고!"

⇒ 앞서 범한이 남 씨의 친필 여부를 확인한 이유가 남 씨의 필적을 흉내 내어 심 씨의 살해를 모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위조하기 위해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곧, 범한은 화진 부부를 모함하기 위해 심 씨를 죽이고 위조된 편지를 흘린 것이며, 이러한 범한의 음모를 알지 못한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채 화춘과 심 씨는 화진 부부의 범행을 확신하여 분노하고 있다.

⇒ 계향이 내당의 일을 범한과 조 씨에게 알린 것에서 그녀가 범한과 조 씨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는, 그 둘의 조력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객이 실수로 난향을 죽였다며 애석해하는 범한의 말에서 난향 역시 범한과 조 씨의 조력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 이 작품의 배경은 명나라로, 동시에 본부인을 여럿 둘 수 있는 혼인 제도에 따라 화 상서는 세 명의 본부인을 두었고, 그중 한 명이 화진의 모친이다. 곧, 화진의 모친은 첩이 아니며 화진 역시 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심 씨는 자신은 본부인이고 화진은 서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적모'라 칭한다. 이는 화진이 아닌 자신의 아들 화춘이 가문의 권력을 가져야 마땅할 적장자라는 심 씨의 생각이 내재된 것으로, 이를 통해 장자 계승의 문제가 화진에 대한 심 씨와 화춘이 가진 적개심의 근원임을 엿볼 수 있다.

 # 토막4 : 화춘의 부탁으로 화진에 대한 소장을 고쳐 쓰는 범한

이때 화춘은 소장의 초안을 들고 황망히 외당(=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범한이 갓을 삐딱하게 쓰고 신을 질질 끌면서 조 씨의 침소인 만류정 샛문으로 나오다가 화춘과 마주쳤다. 범한은 놀라는 기색 없이 태연했고 화춘도 의심할 겨를이 없었다. 범한이 웃으며 물었다.

"형의 집에는 무슨 변고가 이리도 많은가?"

⇒ 범한이 흐트러진 차림새로 조 씨의 침소인 만류정 샛문으로 나온 것에서 범한과 조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범한을 보고도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는 화춘의 모습에서 그의 어리석은 인물됨이 드러난다. 이러한 화춘의 인물됨을 잘 알고 있는 범한은 화춘을 마주치고도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다.

화춘이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내 팔자가 너무 사나워서 불행하게 아우[→ 화진]를 하나 두었더니 온갖 변괴가 일어나네."

그러고는 고소장[→ 심 씨가 쓴 소장의 초안]을 내보이며 말했다.

"자네가 한번 보고 다듬어 주게."

⇒ 화춘은 집안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을 담은 고소장을 외부 인물인 범한에게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다듬어 달라고까지 한다. 이러한 화춘의 행동은 범한에 대한 신뢰를 보여 주는 한편, 범한의 인물됨을 알아보지 못하는 화춘의 어리석음과 경솔한 성품을 드러낸다.

범한이 다 읽고는 냉소하며 말했다.

"이처럼 큰 변고에 이렇게 졸렬한 고소장을 썼으니, 장차 무고죄(=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받을까 걱정되네."

화춘이 깜짝 놀라며 두려워했다.

"그렇다면 형의 훌륭한 솜씨를 좀 빌리세."

그러자 범한이 붓을 들어 수천 마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말이 너무 악독하고 참혹해서 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 범한은 만약 화진이 무고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 도리어 화춘이 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화춘을 걱정하는 척하며 오히려 겁을 주고 있다. 이는 화진이 더욱 악인으로 보이도록 고소장의 내용을 악독하고 참혹하게 고쳐 써 자신의 계획대로 화진을 가문에서 추방하기 위한 것이다.

*** 참고 자료**

 # 작품 전체 줄거리

1) 명나라 세종 황제 때, 병부 상서 화욱은 첫째 부인 심 씨에게선 장자 화춘을, 둘째 부인 요 씨에게선 딸 화빙선[→ 태강 소저]을, 셋째 부인 정 씨에게선 차자 화진을 두었다. 화욱의 집에는 화욱의 맏누이인 성 부인이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성준과 함께 살고 있다. 요 씨는 딸 태강을 낳고 일찍 죽는데, 죽으면서 딸을 정 씨에게 부탁하고 정 씨는 태강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화욱은 어사 남표가 승상 엄숭의 권력 농단을 탄핵하다 도리어 귀양 가게 된 것을 보고 어지러운 조정을 걱정하는데, 아들 화진의 말을 듣고 벼슬을 사임하고는 고향 소흥부로 돌아온다. 화욱은 평소 용렬하고 교만한 화춘을 '우리 집안을 망칠 자'라고 나무라는 반면, 어질고 영특한 화진을 '우리 가문을 일으킬 자'라고 칭찬하며 편애한다. 이에 불만을 품은 화춘과 그 어미 심 씨는, 화진과 정 씨뿐 아니라 정 씨가 보호하는 태강 소저까지도 시기하고 미워한다.

2) 화춘을 임 소저와 혼인시킨 화욱은 몇 년 뒤, 시랑 윤혁의 딸 윤옥화(윤화옥)와 윤혁의 양녀 남채봉을 화진과 정혼시킨다. 하지만 그해에 화욱과 정 씨는 갑자기 병을 얻어 죽고 만다. 이때부터 심 씨와 화춘의 악행이 시작되어 화진과 태강 소저를 욕하며 때리는 등 학대한다. 그러나 화진과 태강 소저는 이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묵묵히 견디며 스스로를 탓할 뿐이다. 이에 앞서, 귀양 가던 남 어사 부부는 엄숭이 보낸 도적을 피하려고 물에 뛰어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도인 곽선공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뒤로 그를 따라 깊은 산으로 숨어든다. 남 어사의 딸 채봉은 난리 통에 부모와 헤어지지만 선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이후 아버지의 벗인 윤혁에게 몸을 의탁한다. 부친의 삼년상이 끝나자, 화진은 윤 씨 집에 가서 윤옥화(윤화옥), 남채봉 두 사람을 부인으로 맞아들여 혼인한다. 집으로 돌아온 화진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고, 역시 급제하여 태수가 된 성준은 어머니 성 부인을 모시고 화 씨 집을 떠난다.

3) 그 뒤로 심 씨와 화춘의 흉악한 짓이 날로 심해진다. 화춘의 첩으로 들어온 조월향은 정실 임 소저를 내쫓고 정실 자리를 차지한 후 화춘의 친구인 불량배 범한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 조 씨와 범한은 작당하여 '불효와 못된 행실'을 내세워 화진을 무고하여 그의 벼슬을 빼앗아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채봉을 소실로 주저앉힌다. 이어 채봉을 독살하지만,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하던 여승 청원이 채봉을 살려 내고 함께 촉으로 도망한다. 범한이 채봉의 필적을 흉내 내어 화진과 채봉이 심 씨 모자를 죽이려 상의하는 내용의 글을 쓰고는 화진을 살해범으로 몰아 소흥부에 고소한다. 화진은 심 씨 모자를 위해 모든 게 자기 죄라며 거짓 자백하고 옥에 갇힌다. 한편 장평이 화춘을 꼬드겨 옥화(화옥)를 엄숭의 아들 엄세번에게 시집보낼 계략을 내는데, 이를 알게 된 윤여옥[→ 옥화의 쌍둥이 남동생]은 여장하고 누이 대신 엄세번 집에 가서는 '화진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전에는 혼인할 수 없으며, 자결하겠다.'라고 위협하며 엄세번을 움직여 화진이 풀려나게 한다. 화진은 윤여옥의 활약으로 사형을 면하고 성도로 귀양을 가게 되며, 아내 채봉이 살아서 촉으로 간 것도 알게 된다. 유배지인 서촉에서 화진은 우연한 계기로 곽선공과 함께 지내는 장인 남 어사를 만나게 되고 자신이 채봉과 혼인한 사실과 채봉이 [독약을 먹고 죽었다가 살아나] 촉으로 도망한 사실을 알린다.

4) 화진은 산에서 우연히 만난 도인에게서 천서(天書)를 얻고 도술을 전수받는다. 이어서 황제의 명령으로 바다 도적 서산해를 무찌르는 전쟁에 백의종군하는데, 기막힌 작전으로 서산해를 물리치고 그 공을 인정받아 천자로부터 대원수에 제수된다. 화 원수는 서산해와 다시 대전을 치르고 결국 그를 사로잡는다. 이어 촉의 채백관이 반역하자 황제의 명에 따라 촉으로 가서 또 이들을 정벌한다. 화춘은 장평 때문에 죄가 다 드러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조월향과 범한이 자기 집 금은보화를 훔쳐 달아난 것을 알게 된 심 씨는 그제야 후회하며 회개한다. 화춘 또한 크게 뉘우친다. 화춘이 투옥된 사실을 들은 화진과 태강 소저는 오히려 화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심 씨는 태강 소저에게 눈물로 사죄하며 착하게 살려고 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5) 촉 땅에서 채봉은 10년 만에 부모님을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만, 자신을 괴롭힌 심 씨 모자를 탓하지 않는다. 모든 반란을 다스린 화진은 황성 가는 길에서 통정참의 벼슬을 제수받은 남 어사와 만나고 엄숭이 황제로부터 의심을 받다가 끝내 재산을 몰수당한 소식도 듣고 채봉과도 해후한다. 이어 황제의 조서가 내려 옥화와 채봉은 각각 진국부인과 초국부인에 봉해진다. 개선한 대원수 화진이 황제 앞에서 화춘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자, 황제가 화춘을 살려 주고 화춘과 심 씨는 화진에게 눈물로 사죄한다. 조월향과 도망친 범한은 회개하기는커녕 끝내 화진을 죽이려 자객을 사주했다가 도리어 자객에게 살해당하고, 조월향과 시비 난수도 붙잡힌다. 쫓겨난 임 소저와 옥화, 채봉이 화부(화씨 가문의 집)에 돌아오고 성 부인까지 화부에 돌아옴에 따라 화진 가족은 모두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된다. 이들은 비로소 온전한 가족을 회복하고 영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여러 가문이 혼인이나 우정, 갈등으로 얽히고설킨 가문 소설이면서, 또한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담은 점에서 애정 소설, 정의로운 군자가 이익을 탐하는 소인배에게 몰려 패할 것 같은 상황에 빠졌다가 다시 본래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정치 소설, 주인공이 적과 싸워 이기고 나라를 구한다는 점에서 영웅 소설, 효와 우애의 승리를 그린 점에서 윤리 소설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2~26] 현대시

(나) 문태준, 「가재미 3－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다」

＊ 작품 평가

화자가 추운 날 고인의 빈집을 정리하며 느낀, 추위에 시달리며 고단한 삶을 살았던 고인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고인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는 화자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자.

[참고] 이 시는 큰어머니의 죽음을 다룬 작가의 연작시 '가재미' 중 마지막 3편이다. 1편 「가재미」는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큰어머니의 모습을, 2편 「가재미 2」는 큰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그리고 3편인 이 작품은 큰어머니의 빈집을 정리하는 화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가재미'라는 작품의 제목은, 1편에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그녀'가 화자를 바라보기 위해 눈이 쏠린 모습을, 그리고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는[→ 죽음을 앞둔] 그녀의 삶을, 물속 바닥에 살며 두 눈이 한쪽에 몰려 붙어 있는 '가자미'의 생태적 특성과의 유사성을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작품 분석

 # 토막1(제1연~제2연) : 늙은 고욤나무 한 그루에 몰아치는 눈보라

그녀의 함석집(＝표면에 아연을 도금한 얇은 철판인 함석으로 지붕을 인 집) 귀퉁배기에는 늙은 고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방고래(＝방의 구들장 밑으로 나 있는, 불길과 연기가 통하여 나가는 길)에 불 들어가듯 고욤나무 한 그루에 눈보라가 며칠째 밀리며 밀리며 몰아치는 오후

⇒ 화자는 '늙은 고욤나무 한 그루'에 주목하고 있다. 고욤나무 한 그루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한의 풍경은 춥고 쓸쓸한 분위기를 환기하며, 집 주인인 '그녀'의 삶이 추위에 시달리며 외롭고 고단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 토막2(제3연~제11연) : 그녀의 집에서 아궁이의 재를 꺼내는 화자

그녀는 없다, 나는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어선다

⇒ '없다', '빈집', '홀로' 등의 시어를 통해 그녀가 부재한 상황임을 부각하고, 그로 인한 화자의 쓸쓸한 정서를 환기한다.

물은 얼어 끊어지고, 숯검댕이 아궁이는 퀭하다

⇒ 물이 얼 정도로 추운 날에 '아궁이'에 불이 없이 퀭한 것은 그녀가 부재한 상황[→ 죽음]임을 드러내는 한편, 그녀 생전에도 추위를 막기 충분할 정도의 불이 아궁이에 피워져 있지는 않았을 것임[→ 춥고 고단한 삶을 살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저 먼 나라에는 춥지 않은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 '저 먼 나라'[→ 사후 세계]에 '춥지 않은 그녀의 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화자의 생각에는, 생전에는 추위를 면할 수 없었던 고인이 그곳에서는 더 이상 춥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 표면적으로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는 화자의 행위는 고인의 빈집을 정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세상 저물 때 그녀는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

그녀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내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

⇒ 화자는 따뜻함의 감각[→ '불의 감각']조차 고인에게 생전의 서럽도록 추운 삶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으므로, 고인이 '불의 감각을 잊도록'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따라서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는 행위는 고인의 삶에 대한 화자의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제7연에서의 '서러움'은 힘든 삶에 대한 그녀의 감정일 뿐만 아니라, 그런 그녀의 삶에 대한 화자의 감정[→ 슬픔과 안타까움]으로도 볼 수 있다.

저 먼 나라에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 제5연을 변주하여 고인이 사후 세계에서는 춥지 않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저 먼 나라에서 그녀는 오늘처럼 밖이 추운 날 방으로 들어서며 맨 처음 맨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쓸어 볼지 모르지만, 습관처럼 그럴 줄 모르지만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낸다

⇒ 화자는 이승에서 춥고 고단했던 고인의 삶의 기억이 사후 세계로까지 이어질까 봐 염려하며, 이승에서의 힘겨웠던 삶에 대한 고인의 기억을 모조리 지워 주고 싶어 한다. 이러한 화자의 바람은 제6연을 반복·변주함으로써 강조된다.

 # 토막3(제12연) : 그녀가 자유롭기를 바라는 화자

그녀는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

⇒ 고인이 화자를 비롯한 이승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는 나아가 고인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과 슬픔을 추스르려는 화자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